

새로운 항뇌전증제 단독 투여와 자살관련행동의 시간적 동향

Temporal trends in new exposure to antiepileptic drug monotherapy and suicide-related behavior

Mary Jo V. Pugh, PhD
Dale Hesdorffer, PhD
Chen-Pin Wang, PhD
Megan E. Amuan, MPH
Jeffrey V. Tabares, MS
Erin P. Finley, PhD
Joyce A. Cramer, BS
Andres M. Kanner, MD
Craig J. Bryan, PsyD

목적: 최근 몇몇 연구에서 자살관련행동(suicide-related behavior, SRB; 생각, 시도)이 항뇌전증제(antiepileptic drug, AEDs)를 복용하는 환자에서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어, 나이가 많은 재향군인으로 구성된 코호트에서 새로운 AED의 복용과 SRB 간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방법: 국가 재향군인건강관리협회(national Veterans Health Administration)의 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재향군인 중 2004-2006년 사이 새로운 AED를 처방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모든 SRB사례는 ICD-9-CM 코드를 이용하여 AED 투여(지표) 1년 전과 후에서 확인하였다. 또한 동반 질환과 이전 연구에서 SRB와 관계있는 것으로 보고된 약물도 확인하였다. 잠재적 교란 변수를 제어하고 지표로부터 1년 전과 후의 기간 동안 30일 간격으로 새로운 AED와 SRB의 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해 GEE 모델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with a logit link)을 이용하였다.

결과: 90,263명의 재향군인으로 구성된 코호트에서, 잠재적 교란 변수를 보정한 이후 다른 기간에 비해 AED 투여 1달 전 SRB 발생이 유의하게 높았다. 비록 87건의 SRB (74명)는 AED 투여 1년 전에 발생하고, 106건의 SRB (92명)는 투여 1년 후에 발생하였지만, 약 22% (16명)에서는 지표일 이전에 이미 SRB가 있었다. 게다가 AED를 투여하기 시작한 뒤 SRB의 비율은 시간에 따라 점차 감소하였다.

결론: 임상에서 AED의 투여와 SRB의 시간에 따른 동향은 SRB의 최고치가 AED 투여 전에 발생함을 보여준다. AED 투여 후에 SRB 발생이 점진적 감소를 보이는 것은 증상으로 인해 조속히 AED 처방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한다.

Neurology® 2013;81: 1900

Table 2 Odds ratios predicting suicide-related behavior after antiepileptic drug prescription: Covariates in temporal analysis

Variable	Odds ratio	95% Confidence limits
Men (vs women)	1.79	0.65-4.91
Married	0.50	0.34-0.72
Indicator of poverty	1.39	0.84-2.31
Epilepsy (vs no epilepsy)	1.85	0.85-3.99
Neuropathic pain diagnosis	1.18	0.79-1.78
Depression	7.02	4.71-10.46
Anxiety	1.48	0.94-2.33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1.19	0.70-2.01
Bipolar disorder	7.67	4.69-12.52
Substance use disorder	3.46	2.17-5.50
Schizophrenia	1.59	0.81-3.12
Dementia	1.39	0.79-2.45